



제2024-1호 초등 교사용

친구를 잘 사귄 수 있을지 걱정돼요

「친구」

가깝거나 오래 사귀어 사람, 가까이 지낸 벗, 친근하게 어울리는 사람, 우정을 나누는 관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학기 초가 되면 학생과 학부모 모두 다양한 고민과 걱정, 긴장을 하게 됩니다.

‘담임선생님은 누구일까? 누구랑 같은 반이 될까?’

학교란 학생에게 있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만큼이나 혹은 가정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있어 학교는 제2의 가정이 되며 처음 만나는 사회적 공간이지요.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을까? 친했던 친구와 다른 반이 되어서 멀어지면 어쩌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쉬는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까? 밥은 누구랑 먹으러 가지?’

학생들은 학년이 바뀔 때 학업에 대해 걱정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비중으로 친구 사귀기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긴장이나 고민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흔히 “인싸”라고 불리는 학급에서 인기가 많고, 친구가 많은 학생들도 고민합니다. 지난 학년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거나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던 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민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고민하는 자기 모습을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이나 걱정을 해도 나아질 것이 없다는 생각에 “에이 친구 없어도 되지!” 혹은 “난 친구 안 사귄래”하고 포기하거나 부정해 버리기도 합니다.

1 학교생활에 친구는 꼭 필요한 걸까요?

-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친밀함에 대한 욕구는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학교는 학업을 배우기 위해서만 다니는 곳이 아닌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또 관계 경험을 해보기 위한 공간으로, 학교에 다니며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맺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라는 것이 꼭 “인기가 많아야 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반에는 여러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키가 큰 학생도 있고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학생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공부보다는 운동을 더 좋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노는 것 좋아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혼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친구 사귀거나 사회성도 비슷합니다.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규칙을 지키고, 협동 활동을 하고, 고민을 털어놓거나 질문을 하기도 하는 등 같은 반 동급생들과 함께 원만하게 지내는 것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모두가 사교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 학생이 외로워 보여서 안쓰러워요. 사회성이 부족한 걸까요?

- 요즈음은 사회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가 되는 시기입니다. IQ나 공부보다도 정서 지능이나 사회성을 중요시해, 공부는 하지 못해도 친구는 잘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의 시선에 혼자 노는 학생이 안쓰러워 보이거나 외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생이 실제로 “외롭고 힘드냐?”입니다. 학생은 몇 명의 친구들과 어려움 없이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것에 만족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교사의 눈에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보여 억지로 친구를 많이 사귀라고 강요하거나 혹은 학생을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라고 단정지어 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학생들의 사회적 경험 또한 학생이 가진 기본 기질이나 성향에 맞춰서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만약 학생이 다소 내향적인 성향으로, 많은 친구를 만나기보다는 혼자만의 생각하는 것 선호하는 편이라면, 굳이 교사가 안쓰럽게 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 그런데 만약 친구들과 사귀고 싶은 마음은 큰데, 학생이 그 방법을 모르거나 서툴러서 친구 사귀기를 어려워하고 이에 따라 위축되거나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때는 학생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때가 맞습니다.

3 친구 사귀기가 어려운 학생, 어떻게 도와줄까요?

- **기질적으로 불안과 긴장이 높은 학생, 또래 경험이 부족한 학생**
 - ▶ 학생과 성향이 비슷한 친구들과 소규모로 엮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활발하고 관계에 적극적으로 서슴없이 다가오는 친구와 함께 있으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자기표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또래나 단체 생활 경험이 부족한 학생이라면, 소그룹의 관계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체육이나 레저활동을 하거나 주기적으로 만나면,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 줄 수 있으며, 학급 전체의 대규모 관계에서 생기는 긴장도보다 낮은 상태에서 긍정적이고 즐거운 또래 경험을 하게 되어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이러한 부분에는 교사가 파악한 바를 충분히 학부모와 상의하고, 가정 연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기중심적이고 또래 관계에서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학생**

- ▶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을 줄 알아야 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만약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하거나 배려하거나 공감하는 경험이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다소 미성숙한 학생이라면, 또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되는 갈등은 관계에 대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 ▶ 따라서 규칙 지키기, 양보하기, 순서 지키기 등 타인과 더불어 지내는 연습, 즉 사회적 기술들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학부모와 상의하고 가정 내에서 꾸준히 연습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 또한 학급 내에서는 단체활동, 자유놀이 시작 전에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생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줌으로써 학생이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자기중심적인 학생들 역시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집단 내에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을 자극하는 요인이 많아지면 더 쉽게 흥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 ▶ 아이들은 평생에 걸쳐 자기 친구를 찾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당장에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고 없고 보다는, 또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조금씩 쌓아 나가고, 친구 관계를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익혀 나가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그러한 또래 관계의 경험을 쌓아가는 아이의 첫 사회적 공간이므로, 학생들이 조금씩이라도 긍정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게 교사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2024. 03.

본 뉴스레터에 관한 문의사항은 다음의 주소로 접수 가능합니다.

 smhrc@schoolkeepa.or.kr